

만남

2018년 9월
통권 16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풍성한 영적 결실을 바란다면---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귀머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4
소공동체 소개	-----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일반: 아프리카의 젊은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풍성한 영적 결실을 바란다면

사람들 중에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오정’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아니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냥 속쓰러워서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간혹 만났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이처럼 힘든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많이 답답하셨겠지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예화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쇠귀에 경 읽기’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발 좀 알아듣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 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땅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좋은 땅’이란 다름 아닌 하느님 말씀을 향한 활짝 열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땅이란 매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영적 결실을 바란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매일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 솟아오르는 이기심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멀리 내다 버려야 합니다. 완고함과 불신의 잡초는 모두 모아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각자에게는 양질의 밭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밭의 소유자가 된 우리는 강한가 하면 부드럽고, 당당한가 하면 겸손하며,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최상의 토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맺은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값진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을은 흔히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영적 결실은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밭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마르 7,31-37)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치유자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지친 몸과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7,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 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7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기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 나에게 닫힌 곳, 어디가 열리기를 주님께 청하고 싶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사안을 앞둔 국회에서 장외투쟁이나 불출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소속정당의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타협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우격다짐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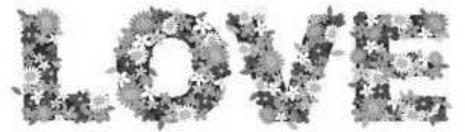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께 응답 드려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이해하고픈 대로 알아듣고, 이웃과 세상에 주님 사랑의 말씀보다 내 안에 가득 찬 불만과 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파타!” 하시며 닫힌 귀를 열고 묶인 혀를 풀어주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 각자의 온 존재를 활짝 열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내 입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5장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Tip**-----

- ★ 복음 봉독 후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 ★ 구성원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족적이고 소박한 본당(장재동본당 구역분과장 박주영 도미니카)

장재동본당은 올해 본당 설립 80주년을 맞이한 본당으로, 그 역사는 1865년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옥지도에서 이사 온 장씨 삼형제 중 한 분이 문산 교우였던 처녀와 혼인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후 입교자들이 증가하여 문산, 진주본당 관할 공소로 지내오다 1938년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당의 오랜 역사에 교우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도시속의 농촌)으로 인해 젊은이는 멀리 대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우 집이지만 신자 수는 2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본당입니다. 성당 인근의 1,2구역은 구역장이 반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연세들도 많으시지만 농사를 지으며 3대가 어우러져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부모님과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와 손주 며느리 3대가 함께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최근 마을 건너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겨 3, 4구역이 신설되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성당이 최고야! 우리 신부님이 최고야! 파이팅!’을 외칩니다. 1년에 한번 신부님을 모시고 구역미사도 하면서 구역별로 단합의 기회를 갖습니다. 또 시간이 되는 구역은 신부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성당행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해 주시는 성모회, 데레사 회원들도 농한기에는 성지순례를 함께 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젊은 교우들이 많이 전입오기를 바라며,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신앙을 살아가는 좀 더 활기 넘치는 본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25. 십자성호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성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성호를 그으십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전례나 기도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나 각종 모임의 시작과 끝에 자주 십자성호를 그습니다. 아, 식사 전후에도 꼭 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여러 순간에 십자성호를 그는 까닭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면 십자성호는 비록 간단한 동작이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중동 지방의 사형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이후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초세기부터 여러 형태의 십자 표시를 전례나 사적인 기도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마와 가슴, 어깨에 그는 전형적인 십자성호는 5세기경부터 나타났지만, 이것이 전례나 개인기도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이 동작은 중세 초기에 성삼 기도문과 합쳐지면서 더욱 일반화됩니다. 이마와 가슴,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그는 이유는 이들 부위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마와 입술 및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작은 십자성호’라 합니다. 작은 십자성호 역시 중세기 이전부터 애용되었지만 전례 안에 들어온 것은 12세기 이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미사의 말씀 전례 중 복음 봉독 직전에 이 작은 십자성호를 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설이 있으나, 대체로 ‘복음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표를 그리는 행위는 4~5세기부터 안수의 의미로 하기 시작했는데 축성, 축복, 사죄, 구마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 표시를 통해 인간에게 빛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26. 제의의 색

오늘 신부님이 미사 때 입은 제의의 색깔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지난 주일에 입으신 제의의 색깔은? 벌써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잘 떠올려보십시오.

미사 때 사제의 제의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전례 시기나 미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색의 제의는 전례의 특성이나 전례 시기별 지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색이라 할 흰색은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부활 대축일,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등 거의 모든 주님의 대축일에 영광, 순결, 기쁨을 뜻하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 성탄과 부활 시기, 성모 축일, 천사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도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붉은색은 주님의 열정적 사랑과 피를 상징하기에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일, 그 밖의 주님 수난 관련 일에 입습니다. 붉은색은 성령의 색이자 신앙을 증거 한 순교자들의 색이기도 하여 성령 강림 대축일과 순교자 축일에도 붉은색 제의를 입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색입니다. 녹색은 전례력에서 ‘일상’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기념일, 축일, 대축일이 아닌 연중 시기에 사제는 희망과 깨어있음을 뜻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은 준비 또는 다른 차원으로 건너감을 뜻하기에 주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습니다.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자는 의미겠지요. 장례 예식 때 보라색 제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부활의 삶을 위해서는 죽음 또한 건너가야 할 순간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므로 장례 미사,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요즘은 대개 검은색 대신 흰색 제의를 입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미색 제의는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이제 곧 기쁜 때가 온다는 희망을 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색 제의는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입는데 흰색, 붉은색, 녹색을 입는 전례시기에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제의 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7. 기도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마태 15,25) 가나안 부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는 숨 쉬고 밥 먹고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에 상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하는 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도는 우리를 정화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줍니다. 또 기운을 북돋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대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잊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며 자신을 숨기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늘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야기할 사람 없어 외로울 때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흔히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탈출기 3장은 기도가 무엇일 수 있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은 모세와 치열하게 대화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드렸으며 마침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사명을 받았고 기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탈출 33,11)는 말씀을 읽을 때면 부러운 마음에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탁월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사막에서 유혹을 받을 때나 제자들을 뽑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신을 하느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참, 기술을 배우듯 기도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비법이나 지름길도 따로 없고요. 기도는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익힐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정성껏 말이죠.

명동본당 지하성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도 기도할까요? 가나안의 간절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자매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질문

세례를 준비 중인 예비신자입니다. 세례 받을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주위 친구들은 저에게 “성당에 다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거나 “돈만 벌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허공에 뜬 소리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며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한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소리에 흔들리는 것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며 사는 존재이자 파도를 헤치며 하느님을 향해 가는 쪽배와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묻기도 전에 우리는 돈과 권력을 떠올립니다. 가난 때문에 사무친 응어리가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집착은 병적인 사회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천민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사유화하는 후진국형 정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인가? 랠프 월도 에머슨(1803~1882)은 ‘성공이란 무엇인가?’란 글에서 “성공이란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댄지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음미해 볼 말입니다.

에머슨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신앙인이 지향하는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행복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커진다고 합니다. 즉, 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웃 사랑이 바로 나의 행복감을 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갖게 해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우선 선행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미국 테네시주 밴더빌트 대학 연구소에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감이 커지고 또한 행복감이 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며, 이것을 ‘FEEL GOOD DO GOOD(필 굿 두 굿)’ 현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본 사람들도 감정적인 이득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감정의 고양(Elevation)이라고 하는데,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권력층의 비리부패에 대한 보도나 강력 범죄에 대한 보도를 보고 들으면 마음 안에서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은 이 땅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도 모를 행복감이 생기는 것을 누구나 한 번 이상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곳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에 사회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삶을 여유롭게 산다고 말합니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혹은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 하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박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 준다고 믿으면서 삽니다. 운이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찌들지 않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성모님께서 지켜 주실 거야 하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 인생문제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억 한 잔, 기쁨 한 입(살레시안 칼럼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추억 중에 하나가 집앞 포장마차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간히 소주 한 잔이 생각나시면 저를 데리고 포장마차에 가셔서 다양한 안주와 소주 한 병 그리고 저를 위한 사이다 한 병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소주잔과 사이다잔을 부딪히며 음료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였던 제 눈에는 포장마차가 참 아늑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우동국물이 끓고 있고, 백열등 아래 있는 여러 물고기들, 닭똥집, 닭발 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눈앞의 먹을거리들은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저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안주이자 음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런 음식을 좋아해서인지, 제 입맛은 참 저렴합니다.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고, 포장마차에서 팔던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어린이를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 좋은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어린 시절의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나름 귀여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저에게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장마차에 앉아서 닭똥집과 사이다 한 잔, 우동 면발을 후루룩 먹는 즐거움이 중요했습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보면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칩니다. 가끔씩 혼자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소주 한 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의미 보다는 추억을 마시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포장마차의 느낌은 안 날 듯합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이지만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의 맛도 안 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의 그 시절을 그리며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주 한 잔 나눌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제 마음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아젠 당당히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 아들이 함께 추억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기쁨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

에서 실망을 했을 때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할 때가 있었던가?’, ‘세례 때의 떨림과 설렘은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나?’, ‘그 땐 성당생활이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어쩌면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이 똑같이 재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며 정말 기뻐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과 마음은 언제나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내 기억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 쓰느냐, 머릿속에 꽂꽂 감추어 두느냐는 본인의 몫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추억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언제나 하느님께로 온 몸과 마음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의 식탁으로 돌아가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의 선조들이 삶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합니다. 교회가 지난 시간의 귀한 순간들을 지금 재현하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신앙의 선조들을 회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깨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시절의 기쁨을 추억하고 그것을 오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지난 과거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만큼은 아닐 지라도 그 힘으로 오늘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김윤하	29일	가브리엘 (St. Gavriel)	최서로	
3일	그레고리오	김유석 김성호		가브리엘라 (St. Gavriela)	박연심 이현후	
4일	로사	이선주		미카엘 (St. Michael)	김재환 김청운 김채준 김찬희 최희로 김혜정	
7일	레지나	서유미				
8일	마리아	권오상		미카엘라	김민현 김영호	
16일	대건 안드레아	강경목				
17일	로베르토 (St. Robert)	강일남 이도선		라파엘 (St. Raphael)	이종하 엄하운	
21일	요나 (Jonas)	이정훈 박요나 안태웅				
				30일	소피아	심재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아퀴나스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배아타	신의경(H)	26일	빈첸시오 가브리엘라	추이슬(B) 신윤경(O)
12일	마리아 (St. Maria)	양봉자(B) 유복희(O)	29일	미카엘 (St. Michael)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20일	정하상 바오로	정하상(O)		라파엘	임석순(H)

❖ 9월 성가번호 ❖

9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285	342	160	34
9일	48	221	151	286
16일	29	511	156	20
23일	찬 양 미 사			
30일	283	25	158	61

❖ 9월 미사 전례 봉사자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2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렛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4구역
9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청년회
16일	이정훈(요나스) 김한솔나(리드비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청년회	요셉 마리아회
23일	찬 양 미 사			1구역
30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허길조(안드레아스) 이명자(가밀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2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7월 22일	7월 29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9일
계(€)	238,50	216,01	294,05	258,30	274,20
헌납금		280	50	70	80
구작입금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580,00 * 헌납금 총 합계 1.06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8월 19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이수용,	윤석순,	이현묵,	윤예진,	이경규,	진윤희,	강신행,
김민옥,	우동천,	이정수,	심동근,	이(박)정은,	강순행,	황영선,
서세원,	손수희,	최장용,	김경렬(점선),		최승진,	김경미,
김건,	현영애,	신옥희,	김효정,	정마리아 Schuster,		

구좌입금 :

김대현,	김유석,	영희Huber-Pahk,	강일남,	홍종각,	육종인,
백정선,	남궁준배,	최순남,	김동수,	홍경영,	김진호,
허두옥,	이정훈,	김치수,	영희 Eggerstedt,	김보경,	이상봉,
허길조,	방조영자,	허채열,	권지연 Rabe,	이성원,	박준병,
이석우,	최현봉,	최성자,	옥수 Ranitzsch,	정정숙,	서유미,
배성우,	김부남,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셨던 순교자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2. 제45회 한인 친선 배구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9월 6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이 날 청년 소공동체 모임도 있습니다.
5. 9월 12일 수요일 오전미사 후에는 요셉마리아회 소공동체, 9월 14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9월 28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6. 9월 15일 토요일에는 Nacht der Kirche 행사가 18시 15분부터 23시까지 주교좌성당 주변에서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도 한국 음식 바자회를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9월 27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8. 9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저희 공동체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헌화와 묵념이 있고, 미사 후에는 공동체 나눔의 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 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싶은 분의 성함이나 초를 준비하신 가정은 제대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4일 토요일 신부님의 어머니님과 동행이신 자매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8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8월 11일 토요일에 봉헌하였습니다.
2. 8월 미사에는 신부님의 어머니님과 일행 자매님들께서 공동체를 방문하셔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3. 오스나브뤼크 공동체에서는 유럽 성령묵상회 피정에 김혜경(아네스), 노금순(데레사), 설윤자(헬레나) 자매님들께서 참석합니다.
4.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8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 제25차 유럽 한인 울프레아 안내

9월 28일(금) 14시 - 9월 29일(토) 16시
 Haus Venusberg,
 Haager Weg 28-30, 53127 Bonn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방조영자(젼마)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일 학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회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젼마)		
		총 무	육종인(베로니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9월(순교자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브레멘 공동체
2	일	연중 제22주일		
3	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4	화			
5	수			
6	목		믿음의 샘 뿌리아	
7	금	백로		
8	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9	일	연중 제23주일	사목월례회, 청년 소공동체	
10	월			
11	화			
12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3	목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14	금	성 십자가 현양 축일	2구역 소공동체	
15	토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Nacht der Kirche	하노버 공동체
16	일	연중 제24주일		
17	월			
18	화			
19	수			
20	목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1	금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22	토			
23	일	추석연휴	찬양미사(한가위 미사)	
24	월	추석(한가위)		
25	화	추석연휴		
26	수	대체공휴일		
27	목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8	금		4구역 소공동체	유럽 한인 울프레야
29	토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		Haus Venusberg
30	일	연중 제26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